마 중 여 행 사 문의:02-730-2270
시베리아횡단열차 타고 바이칼호수로 겨울여행 8일
2019년 2/12, 2/19 출발

비즈 패트롤 | 롯데 신동빈 회장, 경영 복귀 첫 회의서 대규모 투자·고용 포문

"5년간 50조, 고용 7만 명"…롯데도 '통 큰' 투자

내년 역대 최대 규모 12조원 투자
유통과 화학 중심 그룹 역량 집중
이커머스 분야 대규모 채용 예상



삼성, 한화에 이어 롯데그룹도 대규모 사업 투자와 대대적인 고용계획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23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유통부문과 화학부문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2조원을 투자하는 등 5년에 걸쳐 국내외 사업 부문에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 7만 명을 고용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롯데 측은 "내년 12조원 투자는 국내 유화사를 인수했던 2016년 투자 11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신동빈(사진) 회장은 이날 경영 복귀 후 첫 주재한 회의에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가치를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문별로 보면 우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온라인 유통 사업 역량을 업계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플랜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물류 시설 및 시스템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유통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쇼핑몰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은 국내 생산거점인 여수, 울산, 대산 지역에 설비투자를 꾸준히 진행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원료 지역 다변화를 이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신시장 진출도 지속 추진하고, 관광 및 서비스 부문에서는 해외 인수합병(M&A)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에서는 올해는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연말까지 1만2000명 채용 수준에 머물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10% 증가한 1만3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후 매년 채용 규모를 차츰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통부문의 이커머스(e-commerce) 분야에서 많은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신동빈 회장은 오후 일본으로 출국했다. 8일 경영에 복귀한 이후 첫 일본행이다. 신 회장은 2주 이상 일본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끝나지 않는 'BMW 사태', 6만5000대 추가 리콜

원인 기존과 동일…EGR쿨러 누수
BMW코리아 예방 차원 대응 강조

BMW그룹 코리아는 잇단 차량 화재로 7월 시행한 리콜 대상에서 제외했던 52개 차종 6만5000대를 추가 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BMW 화재발생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다른 차종에서 발견해 추가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11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생산된 BMW 118d와 미니 쿠퍼 디젤 등 6만5000여대다. 모델별 생산기간은 상이하다. BMW는 8일 추가리콜 의향을 알리고 대상차량, 대수, 시정방법, 리콜 시기 등의 내용을 확정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22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BMW코리아 측은 "이번 리콜은 정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현재 진행하는 10만6000여대 리콜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라며 "기존 리콜 대상에 비하여 화재위험이 현저히 낮지만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리콜 사유도 그동안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다. EGR 쿨러의 누수로 드문 경우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리콜 차종 보유 고객에게는 24일 고객통지문을 발송하고, 11월26일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 개선품 교체를 시행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여부 또는 문의사항은 BMW 및 MINI 홈페이지, 전국 84개 공식 서비스센터, 리콜 전담 콜센터(080-269-518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리콜 조치로 BMW 화재 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화재원인, 추가리콜 적정성 여부는 물론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BMW의 리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8월20일부터 실시한 10만6000여대 대상의 리콜 작업이 10월 21일 기준으로 총 5만9900여대, 전체 물량의 56%를 마쳤다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독도의 소중함, 잊지마세요"

패션·유통계, 25일 독도의 날 이벤트

패션, 유통업계는 10월25일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편의점 CU는 25일까지 SNS를 통해 '독도 타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SNS의 '독도 타임라인'을 통해 독도의 역사, 독도 영유권의 가치 등을 알리고, 고객 반응(좋아요, 댓글, 공유 등) 1건당 1000원씩 최대 1000만원을 독도 접안시설 개선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독도사랑운동본부에 기부한다.



▲GS25의 '독도사랑 새우맛 라면'.

GS25는 8월 경북 울릉군과 손잡고 만든 지역상생상품 '독도사랑 새우맛 라면'이 60만개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자, 10일 경북 울릉군과 지역 특산물 유통망 확충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판매수익금으로 독도 영유권 강화 캠페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독도 에디션' 출시도 활발하다. 코오롱FnC 헤드는 신발브랜드 라카이코리아와 손잡고 트레이닝복, 스니커즈 등으로 구성한 '헤드X라카이 독도 에디션'을 내놓았다. K2는 '2018 코볼드 롱다운 독도 에디션'을 출시, 10월25일에서 착안한 1025개를 한정 판매한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코오롱FnC 헤드 모델 선미가 선보인 '헤드X라카이 독도 에디션'. 사진제공 | 코오롱FnC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3일

코스피지수	2106.10	▼	-55.61
코스닥지수	719.00	▼	-25.15
日 닛케이 지수	2만2010.78	▼	-604.04
中 상하이 종합	2594.83	▼	-60.0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89	▼	-0.020
환율 (원·달러)	1137.60	▲	+9.2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5024.17	▲	+528.59

오리온 '감자엔 소스닷' 170만 봉 돌파



오리온은 '감자엔 소스닷'(사진)이 출시 한 달 만에 누적판매량 170만 봉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자엔 소스닷은 기존 양념가루를 묻히는 방식과 달리, 오일과 양념을 버무려 만든 소스를 생감자칩에 점점이 뿌리는 닷(DOT)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감자에 케찹을 찍어먹는 듯한 풍미의 '토마토케찹맛'과 매콤한 '칠리소스맛' 두 가지를 선보이고 있다. 원성열 기자

9월 외국인 방한객 18.5% 증가

한국관광공사가 23일 발표한 '2018년 9월 한국관광통계 공표'에서 9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127만8604명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5% 증가다. 하지만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기 보다는 지난해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금지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증가세가 비교적 크다는 평가이다. 최근 방문객이 큰 폭으로 늘어나던 일본은 태풍 제비와 홋카이도 지진 등의 여파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12.7% 늘어났다. 이밖에 태국(11.9%) 베트남(30.1%) 말레이시아(37.8%) 인도네시아(9.6%) 등의 국가에서 10%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다. 김재범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공기업 자소서·면접 대비 TIP

취준생이 궁금해하는 공기업 채용 Q&A 공개

하반기 공기업 채용 열기가 뜨겁다. 서류 접수에 이어 대부분의 공기업 합동채용 필기시험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에는 한국은행·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총 13개의 금융공공기관의 필기시험이 치러졌으며, 오는 2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및 보건 의료 분야 공기업 필기시험도 진행된다.

이처럼 '신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취준생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공기업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Q&A를 공개했다.

특히 필기전형 다음인 면접 전형에 관한 궁금증이 가장 많았다. 우선 취준생들은 공기업과 사기업 면접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에 에듀윌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공기업의 경우 특수한 상황 질문이 사기업보다 더 많다. 특히 공기업 PT 면접의 경우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과제를 주고 풀어내야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역량은 직업기초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면접 때 자기소개서 내용을 그대로 외워도 되는가"다. 에듀윌은 "자기소개서 내용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자기소개서 중 전체 내용을 다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경험이나 직무경험 등 눈에 띄는 것을 물어볼 확률이 높다.

에듀윌은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면접 예상 질문 및 답변이 포함된 '스펙 역전! 블라인드 채용 대비 공기업 자소서&면접' 교재를 출간 중이다. 무료 면접 강좌도 수강 가능하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5		2				9		8
			2	5	7			
6				4				2
	8		4		3		5	
	2	3				6	1	
	9		1		6		8	
3				1				6
			6	8	4			
2		8				7		1

	9		7		8			
		1		2		6		8
	8				3		7	
5		9		7				4
	2		5		1		9	
1				9		8		5
	4		3				2	
9		2		8		4		
			4		2		8	

■ 스도쿠정답

2	6	8	5	3	9	7	4	1
9	7	1	6	8	4	3	2	5
3	5	4	7	1	2	8	9	6
7	9	5	1	2	6	4	8	3
4	2	3	8	9	5	6	1	7
1	8	6	4	7	3	2	5	9
6	1	7	9	4	8	5	3	2
8	3	9	2	5	7	1	6	4
5	4	2	3	6	1	9	7	8

7	1	3	4	6	2	5	8	9
9	5	2	1	8	7	4	6	3
6	4	8	3	5	9	1	2	7
1	6	7	2	9	4	8	3	5
8	2	4	5	3	1	7	9	6
5	3	9	8	7	6	2	1	4
4	8	5	6	1	3	9	7	2
3	7	1	9	2	5	6	4	8
2	9	6	7	4	8	3	5	1